"생리대 VOCs, 위해수준 아냐"

〈휘발성유기화합물〉

식약처, 297개 제품 모니터링
전년도 대비 검출량 66% 수준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도

생리대 /유토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이 의심되는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검출량은 위해 우려 수준이 아니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년 대비 VOCs는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고, 농약(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또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16종 중 디메톡시에칠프탈레이트(DMEP) 등 11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5종은 검출됐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생리대의 VOCs 저감화를 위해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등 국내 대형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를 반영해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에서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생리대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알레르기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연락처 등도 표시해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또 내년에는 다이옥신류(17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NO2 노출 잦으면 '당뇨병성 혼수' 위험 높다

〈이산화질소〉

당뇨병성 혼수 환자 3527명 분석

햇빛 광화학 반응으로 미세먼지 생성

미세먼지와 함께 주요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꼽히는 이산화질소(NO2)가 당뇨병의 치명적 합병증인 '당뇨병성 혼수'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뇨병성 혼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급성 합병증으로, 혈당이 600㎎/*dl*에서부터 심한 경우 1000~2000㎎/*dl*까지 치솟기도 한다. 이 경우 환자는 기력이 약해지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탈수 증상이 심해지고 결국 의식을 잃게 된다. 이때 환자의 증상은 뇌졸중과 비슷하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손정우·김현미)은 2005~2009년 당뇨병성 혼수로 서울의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3527명(평균 57세)을 분석한 결과,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당뇨병성 혼수 위험을 높이는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대한예방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최근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조사 기간에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 등의 농도 변화가 당뇨병성 혼수에 의한 응급실 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이 결과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가 당뇨병성 혼수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는 그 자체로 독성을 가지지만, 햇빛과의 광화학 반응으로 미세먼지를 생성한다.

연구팀은 이산화질소 노출량을 농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그룹의 당뇨병성 혼수 위험도가 가장 낮은 그룹보다 13%(1.13배) 더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런 연관성은 여성과 60세 이상에서 더욱 뚜렷했다. 연구팀은 장기적으로 이산화질소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의 축적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또 단기적으로는 블랙 카본(자동차 매연 등 그을음)과 질소화합물 흡입이 당뇨병 합병증 증상을 급성으로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세경 기자

"박보영과 허그하고 감기 이겨내세요~"

동아제약 판피린 감기예방 캠페인

동아제약은 종합감기약 '판피린'의 감기 예방 캠페인 '박보영의 허그랜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박보영의 허그랜드는 14일 허그데이를 맞아 연인과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판피린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마련됐다.

14일 오후 2시~9시, 15일에는 오후 1시에서 8시 까지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허그랜드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허그랜드 출입국 사무소', 판피린 베어와 허그하며 사진 찍을 수 있는 '오! 나의 판피린 베어', 연인 간의 허그를 통해 심박수를 측정하는 '콩닥콩닥 허그존', 감기 예방 정보 및 감기에 좋은 차를 제공하는 '감기 예방이 보영 Cafe'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을 반길 계획이다.

14일 오후 7시에는 판피린 광고 모델 박보영이 행사장에 방문해 사전 이벤트 당첨자 35명과 포토타임 및 팬 사인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선착순 70명에게도 팬 사인회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포옹은 친밀감과 유대감 상승뿐만 아니라 포옹을 자주 주고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며 "부쩍 추워진 요즘, 따뜻한 포옹과 판피린으로 건강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판피린은 50년 이상 된 장수 브랜드이다. 1956년 허가를 받고 1961년 판매를 시작했다.

판피린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며 감기약 하면 떠올려지는 대표 감기약으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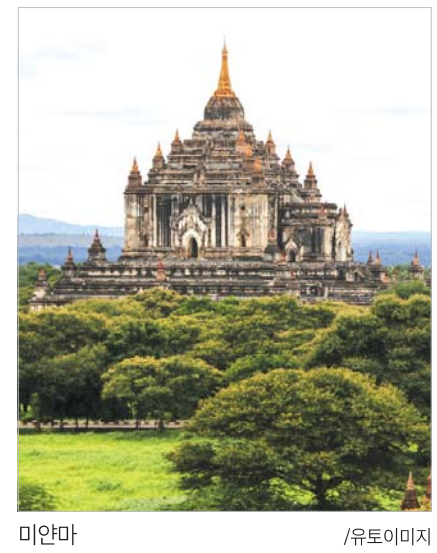
/이세경 기자

뉴질랜드 /유토이미지

내년 여행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청정 여행' 어때?
미얀마 양곤 '동남아 소도시' 떠날까?

티몬 내년 여행 키워드 분석



미얀마 /유토이미지

뉴질랜드와 미얀마가 내년 인기 여행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티몬은 올해와 내년 상반기(1~6월) 항공권 예약 58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내년 상반기 각광받을 여행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미얀마 양곤,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티몬은 내년 상반기를 꿰뚫는 첫 번째 여행 키워드로 '청정 여행'을 꼽았다. 뉴질랜드 오클랜드가 급상승한 인기 지역 1위를, 호주 시드니가 6위를 차지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여행지가 각광받고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오랫동안 다른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어 특유의 생태계와 청정한 자연이 유지되고 있는 여행지다. 회사는 미세먼지, 각종 화학용품 등으로 환경문제에 민감해진 고객들이 여행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 여행 키워드로는 '동남아 소도시 여행'을 꼽았다. 급상승 인기 순위 2위에 오른 미얀마 양곤과 5위에 오른 태국 치앙마이는 최근 여행객 사이에서 한달 살기로 인기를 얻는 지역이다. 실제로 내년 1~6월 티몬투어 항공권 발권 기록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의 평균 체류 기간은 28일로 조사됐다. 매우 이례적인 여행 기간인 셈이다.

치앙마이 역시 평균 체류 기간이 10.3일로 태국의 수도 방콕 평균 체류기간인 6.3일보다 4일 길었다. 티몬은 해외여행 경험이 많아지면서 도쿄, 방콕, 런던 등 관광객이 많은 번잡한 도시형 여행지를 벗어나 소지역에 머물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지내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미얀마는 지난 10월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여행 준비가 한층 가벼워졌다.

마지막 여행 키워드는 '대중화된 프리미엄 휴양 여행지'다. 동남아 여행지 중에서도 물가는 살짝 높지만 치안과 고급 리조트가 많아 신혼여행, 골프여행 등 고급 여행지로 구분됐던 여행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았던 태국 푸켓은 내년 상반기 급 인기 여행지 7위에, 골프여행객이 주로 찾았던 클락필드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클락필드는 어린이 영어캠프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안전한 여행지로 인기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밖에 올해 9월부터 새롭게 직항 노선이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발권 급상승 순위 3위에 오르며 내년 상반기 각광받는 여행지로 이름을 올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뉴발란스 '2019 서울 국제마라톤 대회' 협찬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NEW BALANCE)가 2019년 3월 17일 개최되는 '2019 서울 국제마라톤 대회'의 새로운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협찬사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국제마라톤 대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마라톤 대회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인증한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다.

제90회 동아마라톤 대회와 함께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골인하는 풀코스를 포함해 10km 코스로 진행되는 서울 챌린지 10K, 서울 42195 릴레이 등 세 가지 종목으로 나눠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국제마라톤 대회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각 종목별 5만 원이다.

뉴발란스 관계자는 "스포츠 브랜드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마라톤 대회 서울 국제마라톤과 함께 러너들의 2019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9월 공주백제마라톤, 10월 경주국제마라톤에도 참여하며 고객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며 러닝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